

일제시대 최장수 잡지 '삼천리' 영인본 발간

1929년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총 32권으로 묶어... 호별목차 등 색인집도

〈국경의 밤〉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파인 김동환이 1929년 6월에 창간한 월간 종합지 《삼천리》는 1942년 3월 폐간될 때까지 통권 152호를 발행, 그 발행실적만으로도 일제시대 종합잡지 가운데 최고 장수잡지로 한국 잡지사에 기록된다. 최근 《삼천리》의 영인본이 간행돼 화제다(색인 1권 포함 전 32권).

파인의 아들 김영식씨가 지난 40여년간 아버지의 족적을 좇아다니던 집념이 결실을 맺어 빛을 보게 된 영인본 《삼천리》(도서출판 한빛)에는 《삼천리》 87권과 《대동아》 1943년 3월호, 해방후 속간된 《삼천리》 7권 외에 자매지였던 《삼천리문학》 2집과 《만국부인》 1권 등 파인이 발행한 잡지 100권이 원본과 동일하게 수록돼 한국 문화사와 잡지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시대 최고의 장수잡지

대부분의 잡지들이 '경영난' '원고난' '검열난'의 3중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상황에서 《삼천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인의 경영능력과 잡지감각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평인데, 창간자금은 파인이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시절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촌지였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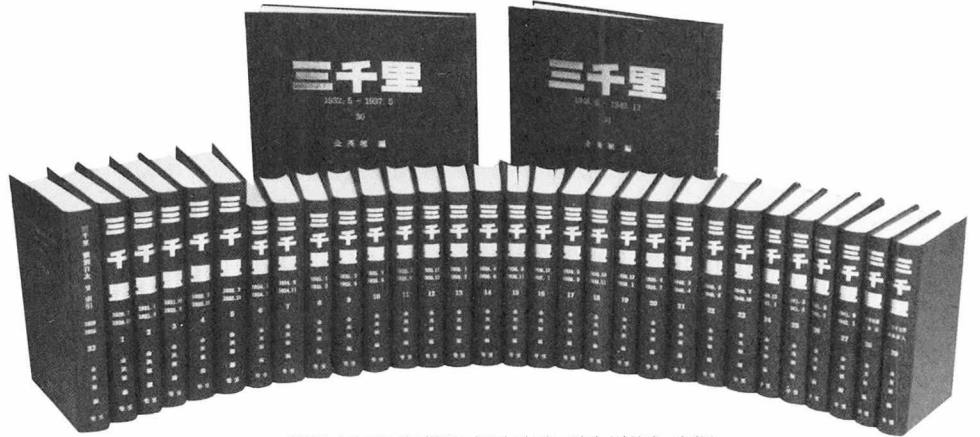
1929년 6월 4·6배판의 종합 월간지로 탄생한 《삼천리》는 '민족의 암흑면을 들추지 말자' '남에게 자금원조를 받지 말자'는 두 가지 편집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일제치하

파인 김동환이 발간한 종합월간지 《삼천리》의 영인본은 당대 내로라하는 문필가와 유명인사의 글이 실려 있어 인물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클 뿐 아니라 당시 생활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더없이 소중한 자료다.

라는 암흑상황 속에서 대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실었던 대중잡지로서의 성격과 경영방침을 알 수 있게 한다. 《삼천리》는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던 무렵부터 점차 친일적으로 변모해갔고, 1942년 5월호부터 제호를 '대동아'로 바꿔 이듬해 3월호까지 발행되었다. 이러한 친일행각으로 해방 후 파인은 반민특위에 자수,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잡지에 실린 글을 통해 파악되는 당대 인사들이나 지식인들의 친일양상은 우리 근대사의 비극적인 상황을 말해준다.

해방후인 48년 5월 타블로이드판 20페이지 신문형태로 속간된 《삼천리》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20호가 발행되었고 파인은 전쟁중 납북되었다.

이번에 간행된 영인본은 일제 치하 14년간과 광복후 2년간 잡지 간행에 몰두했던



한국잡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32권의 《삼천리》 영인본.

파인 김동환의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상과 면모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삼천리》에는 당대의 내로라하는 문필가와 유명인사들의 글이 실려 있어 인물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클 뿐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꼼꼼한 색인 작업으로 활용가치 높여

특히 지금까지 《삼천리》의 종간호는 1941년 11월호 통권 150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1942년 신년호의 입수로 인해 종간호가 통권 152호인 것으로 밝혀졌고, 《대동아》의 종간호인 1943년 3월호를 찾아낸 것도 이번 영인본 작업을 통해 거둔 성과다. 그동안 잡지계나 서지학계에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광복 후에 속간된 《삼천리》를 수록한 것

도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만 9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100권의 잡지를 정리하여 호별 목차와 색인작업을 통해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인 점도 높이 살 만하다. 색인 작업은 정진석 교수(외국어대·언론학)가 맡았는데, 인명색인과 사항색인으로 대분류하고 사항색인은 다시 한국인명, 한국사항, 외국인명, 외국사항 등 4개 주제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게 했다.

부친의 생애를 추적하는 데 온 힘을 쏟아 《아버지 파인 김동환》 《파인 김동환 전집》을 이미 출간한 바 있는 김영식씨(63)는 "이번에 간행된 영인본을 통해 17년간에 걸쳐 잡지 발행에 힘쓴 아버지의 잡지 발행인으로서의 면모를 한국잡지사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을 밝혔다. —박남정 기자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 구독료 안내(주1회 발행)
 - 6개월 구독시 ▶ 12만원
 -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 271-0494
 FAX. (02) 271-0495

출판정보의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출판정보」에서는 약50여종의 일간지에 실린 출판관련 기사를 각 회원사별로 발췌·정리하여 팩스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1 팩스서비스는 1996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 2 중앙일간지 17개와 지방일간지 31개에 실린 모든 기사(신간소개, 작가관련내용, 출판인 및 출판사홍보, 독후감과 서평 등)를 제공합니다.
- 3 신청회원사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새로운 출판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출판인들의 필독도서로 위치하고 있는 「출판정보」는 출판정보종합매체로서 50개의 일간지와 해외 주요 국 저널의 출판관련기사와 광고, 정책자료, 조사자료 등 발굴정보와 자료도 폭넓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광맥입니다.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